

국민정체성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미국인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와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윤종빈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희옥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연구는 국민정체성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국민정체성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들 두 형태의 국민정체성 인식이 이민과 이중 언어 문제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 자료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 결과는 국민정체성 인식이 개인들의 태도 및 행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상징적 신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징 정치이론의 설명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이민 문제와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한 의견은 물론이고 투표 참여 행태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태도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미국정치, 이민, 국가정체성, 다문화사회, 투표참여

* 이 연구는 2013년도 명지대학교 교직원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1. 서 론

본 연구는 국민정체성 인식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정체성 인식이 시민들의 이민 및 이중 언어 관련 이슈에 대한 태도와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정체성 인식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사회 내에서 ‘국가’ 및 ‘민족’의 문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늘어나는 이민자의 숫자라는 사회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영국 청교도의 이민으로부터 국가가 시작되어 현재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 최대 이민유입국 중의 하나로 총 이민자 숫자가 약 4천 4십만 명에 이른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자 수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변화는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인구의 유입은 전통적으로 제1의 소수집단(minority group)이었던 흑인을 제2의 소수집단으로 밀어내게 되었고 히스패닉의 높은 출산율과 계속되는 미국 내 유입은 2050년경 히스패닉이 백인을 제치고 최대집단(majority group)이 되는 인구혁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미국은 불법이민자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민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갈등 및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민자 수의 급증은 미국 사회 내에서 영어 사용에 대한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 출신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몇몇 교과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영어가 아닌 이민자의 모국어로 교육하도록 하는 이중언어교육법(the Bilingual Education Act of 1968)이 1968년 미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은 영어가 아닌 소수자의 언어로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표면적 목표를 내

세웠으나 본래 의도는 궁극적으로 이민자들이 모국어를 버리고 영어만을 학교교육의 주 언어로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었으며 결국 이는 20세기 전환기부터 지속되어왔던 기존의 강제적 미국화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오영인, 2012). 이후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정책은 1970년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민족 문화에 자긍심을 길러주는 소위 다문화 교육의 성격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민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본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변화는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과연 ‘나의 국가’가 무엇인지를 재정의하고 ‘타 집단’ 사람들은 누구인지 경계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국민정체성은 미국인들의 정치태도 및 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정체성이란 특정 국가 또는 국민과 연관하여 자신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Hjerm, 2005; 윤인진·송영호, 2011).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nationhood)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또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인식으로서(Brubaker, 1992; 윤인진·송영호, 2011), 국민정체성이 개인의 정치적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하는 것은 개인이 인식하는 ‘국가’의 문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개인의 정치태도 및 행태에 대한 연구들 중 상당부분이 국민정체성 인식 변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시민들의 정치태도 및 행태에 대한 기존 이론의 설명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II. 상징 정치이론과 국민정체성의 영향력¹

국민정체성은 특정 국가 또는 국민과 관련하여 자신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념과 감정을 의미한다(Hjerm, 2005; 윤인진·송영호, 2011). 국민정체성 인식은 사회 정체성²의 한 형태로서 국가 구성원을 국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인 국민과는 자신을 동일시하는 포섭의 태도를 타자인 이주자 이주자에게는 거리를 두는 배제의 태도를 보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Hjerm, 1998; 윤인진·송영호, 2011). 즉, 인종, 성별, 출신민족, 계급에 바탕을 두어 일정한 경계선을 그어 자국민인 ‘우리’와 이주자인 ‘그들’로 분리하여 한 나라의 국민됨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국민정체성 인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정체성 인식은 하나의 단일한 형태가 아니다. 본 연구는 미국 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을 자문화 중심주의(ethnoculturalism)와 시민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미국 국민정체성의 근간이 되어왔던 전통적인 정체성의 한 형태이다. 이는 ‘우리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계 짓는 성향으로 정통 미국인들은 백인으로서 북유럽계 조상을 가졌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정짓는다. 즉,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은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동일 조상의 후손으로써 문화적 유산과 전통을 공유하고 공동의 운명공동체로서 집단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집단’에 속하기 위한 자격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귀속적 속성이 강하고 민족의 구성에 있어 영토나

-
1. 이 장에서 논의된 정체성과 상징 정치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줄저 Jeong(2013)를 인용·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이란 사람들이 자신이나 상대방을 파악할 때 각기 개별적이고 독특한 개체가 아닌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된 하나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견주어 그 대상자의 사회적 역할을 정형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최셋별 외, 2003).

관습, 제도보다는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의 정서에 남아있고 때로는 행동으로써 표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헌팅턴(2004)은 그의 책 *Who Are We?*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은 앵글로 색슨이 중심이 된 사회로 미국의 위대함은 이러한 가치와 문화로부터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헌팅턴은 미국의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정체성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새로운 형태의 문명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헌팅턴의 이러한 주장에서 반 이민 정서의 중심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미국인들의 정체성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자문화 중심주의와 함께 또 하나의 전통적인 미국의 국민정체성의 한 형태가 바로 시민 공화주의이다.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은 자문화 중심주의와는 달리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혈통 보다는 영토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자격요건을 더욱 중요하게 간주한다. 이 모델은 귀속적이 아닌 선택적이고 자발적 속성을 중요시 여기며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및 의무의 행사, 제도와 관습의 준수 등을 강조한다(Jones and Smith, 2001; 최현, 2007). 따라서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은 미국을 책임감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활성화된 민주주의 체제로 상정한다.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은 최근에 들어 반 이민정서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민자들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은 정통 미국인들처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반 이민정서에 합리성을 부여해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인들의 국민정체성을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과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에 대한 태도와 투표참여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이민 및 이중 언어에 대한 태도와 투표참여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상징 정치이론(symbolic politics theory)을 토대로 한다. 상징 정치이론은 특정 이슈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치관이나 정체성 같은 추상적 신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슈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행태에 있어 개인이 가진 정체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에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은 실제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는 집단의 특정한 정치적 상징물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쉽게 변하지 않는 호의적 반응을 습득하게 되며 이러한 호의적 반응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특정 성향을 습득하게 되고 이 성향이 개인의 정치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상징정치이론에 기반을 두어 개인들의 국민정체성이 이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논문들은 여럿 있으나 대다수가 미국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시트린과 더프(Citrin and Duff, 1998), 시트린 등(Citrin et al., 1990), 실드크라우트(Schildkraut, 2002)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개인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이민 문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에 더해서 보다 다양한 이민 및 이중 언어 관련 이슈들, 그리고 투표참여에까지 국민정체성 인식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한편, 상징 정치이론은 경제적 이익 이론과 대비된다.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이익 이론에 바탕을 두어, 소득수준,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교육수준 등 개인적 요소가 정치태도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Alvarez and Butterfield, 2000; Case et al., 1989; Espenshade and Calhoun, 1993; Starr and Roberts, 1982).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이민 문제와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물질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계산을 반영한다고 한다. 즉, 개인의 객관적 경제상황 및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이민자들을 유한한 물질적 자원을 뺏는 위협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자원에 대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이민자를 향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심화된다. 또한 높은 교육수준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양질의 교육 과정을 통해 타 집단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학습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호감을 형성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Hernes and Knudsen, 1992; Hainmueller and Hiscox, 2007; McClosky and Brill, 1983). 교육과 소득수준은 투표를 비롯한 정치행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다(Wolfinger and Rosenston, 1980; Leighley and Nagler, 1992; Verba et al., 1993a, b).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정치참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심리적으로 용이하고 실제적으로도 손실보다는 이득이 많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는 보다 근원적인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인들은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상징적 가치에 의지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징 정치이론에 기반을 두어 국민정체성 인식이 이슈에 대한 태도 및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이슈에 대한 견해와 투표 참여 결정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근원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론

분석 자료로는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이며 분석방법으로는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국민정체성 인식 변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정체성과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으로 분류하여³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라

3. 몇몇 학자들은(Herring et al., 1999; Shulman, 2002; Oliver and Wong, 2003) 국민 정체성을 종족적 요인, 즉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적 요인, 즉 시민 공화주의로 구분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분리된 요인을 발견하였다. 또한 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질문들은 서로 간에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주요 독립변수의 측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요인분석과 상관분석 결과는 생략하였다.

고 생각되는 것들을 열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당신을 진정한 미국인으로 만드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열거된 요소들 중 “미국에서 태어남” “기독교인임” “유럽계 조상을 가짐” “백인임”은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으로 분류하였고,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함” “자신을 미국인으로 생각함” “미국인이라고 느낌” “지역과 전국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음” “지역과 전국 정치에 참여함”은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기존 연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미국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과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방법이다(Schildkraut, 2003; 2007).⁴

이민 이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 (1) “이민자들은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일자리와 기회의 측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친 이민 정서 1). (2) “이민자들이 미국에 살고 싶다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하나 많은 이민자들은 미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친 이민 정서 2). (3) “우리나라로 입국을 허용하는 이민자들의 숫자를 감소시켜야 하나, 아니면 증가시켜야 하나? 또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친 이민 정서 3). 이들 세 질문들은 시민들의 이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선행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된 질문들이다(De Figueiredo and Elkins, 2003; Schildkraut, 2005). 분석을 위해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응답을 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질문의 경우 “감소해야 한다”는 응답을 1,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2,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을 3으로 코딩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들의 경우는 4개의 응답 범주를 갖고 있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을 1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를 4로 코딩하였다.

4.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의 상관계수는 .709(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유의미 함)이며, 시민 공화주의 변수의 평균값은 13.7, 자문화 중심주의는 7.5로 나타나 미국인들에게서는 두 정체성 중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1=찬성, 2=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음, 3=반대).

투표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질문을 사용하였다. 첫째, “당신은 투표자 등록을 하셨습니까?”(1=했음, 0=안 했음)라는 질문을 통해 ‘투표자 등록’ 변수를 만들었다. 둘째, “당신은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하셨습니까?”(1=했음, 0=안 했음)는 ‘투표 참여’ 변수를 만들었는데 사용하였다. 셋째, “당신은 2004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1=있음, 0=없음)를 통해 ‘투표 참여 의향’ 변수를 만들었다.

통제변수로서 연령, 교육, 소득수준, 성별, 인종, 종교, 시민권 취득 여부, 정당일체감, 정치이데올로기, 정치신뢰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변수는 ‘중졸이하’를 1로, ‘대학원 졸업’을 7로 코딩하였으며, 소득수준은 응답자의 연간 가구 소득으로 16개의 응답범주를 갖는다. 성별 변수는 ‘남성’을 1로, ‘여성’을 2로 코딩하였으며, 시민권 취득 변수는 ‘시민권 취득’을 1로, ‘그 외 기타’를 0으로 코딩하였다. 천주교, 흑인, 백인은 더미변수들이며, 정치이데올로기는 1을 ‘보수적인 성향’, 2를 ‘중도’, 3을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았다. 정당일체감 변수의 경우, 강한 민주당 지지자를 1로, 강한 공화당지지자를 7로 코딩하였다. 정치신뢰는 “당신은 중앙정부가 항상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거의 항상 신뢰한다’를 4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1로 코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국민정체성과 이민 및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

국민정체성이 친 이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응답자

〈표 1〉 국민정체성과 이민에 대한 태도

독립변수	친 이민 정서(1)	친 이민 정서(2)	친 이민 정서(3)
자문화 중심주의	-.270*** (.028)	-.218*** (.029)	-.145*** (.030)
시민 공화주의	-.043** (.019)	-.054*** (.019)	-.010 (.021)
연령	.002 (.003)	-.015*** (.003)	-.005 (.003)
교육	.185*** (.027)	.159** (.028)	.168*** (.030)
소득수준	.022 (.012)	.036*** (.012)	.000 (.013)
성별	-.037 (0.87)	.078 (.088)	-.047 (.095)
흑인	-.122 (.110)	.382*** (.112)	-.650*** (.182)
백인	-.708*** (.165)	-.127 (.171)	-.650*** (.124)
천주교	.146 (.104)	-.087 (.105)	.019 (.114)
시민권	-.223 (.191)	.088 (.191)	-1.220*** (.214)
정당일체감	-.092*** (.023)	-.065*** (.023)	-.108*** (.025)
정치이데올로기	.262*** (.065)	.188*** (.066)	.191*** (.071)
N	2074	2061	2073
Pseudo R ²	.188	.161	.149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p<0.05, ***p<0.01(two-tailed)

들은 강한 반 이민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혜택만 받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이민자들의 숫자는 감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 역시 이민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응답자들은 이민자들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혜택만 받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미국에 대해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강한 반 이민정서를

〈표 2〉 국민정체성과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

독립변수	언어 정책
자문화 중심주의	-.101*** (.037)
시민 공화주의	-.100*** (.025)
연령	-.014*** (.004)
교육	.037 (.035)
소득수준	-.039** (.015)
성별	.053 (.113)
흑인	.063 (.196)
백인	-.474*** (.137)
천주교	.569*** (.132)
시민권	.213 (.224)
정당일체감	-.173*** (.031)
정치이데올로기	.456*** (.081)
N	1,916
Pseudo R ²	.124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p<0.10, **p<0.05, ***p<0.01(two-tailed)

표현했다. 친 이민정서를 측정하는 3번째 질문에서는 시민 공화주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회귀계수가 음의 부호를 띠고 있어 그 방향에 있어서는 다른 두 설문항을 사용한 분석 결과와 동일했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이 반 이민 정서를 야기한다는 결과가 세 질문들 거의 모두에서 일관되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정체성 인식이 이민 태도에 미치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이익 이론이 설명하듯이 교육과 소득수준은 친 이민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인일수록 이민 이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세 질문들 거의 모두에서 일관된 영향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국민정체성 인식이 이중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표 2>에 따르면,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가진 미국인일수록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공화주의 변수 역시 부의 회귀계수(-.100)를 보여,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영어를 미국의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인들의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에 대한 견해는 자신이 속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상징 정치이론이 주장하듯이 상징적인 요소가 이민 및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들의 정치적 결정이 국가와 관련된 상징적인 가치에 대한 반응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분석결과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가 동시에 이민 및 언어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미국인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전통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과 연관이 있음이 알려져 왔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한다. 여기에 더하여 본 연구는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도 최근 격렬해지고 있는 반 이민정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반 이민정서가 개인의 소득이나 학력수준에서 비롯되는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깊고 심리적인 측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쉽사리 변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반 이민 정서의 해소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장의 경험적 분석 결과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는 나는 누구이며 내 국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단면적이라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지

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국민정체성과 투표 행태

아래의 <표 3>은 국민정체성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⁵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미국인은 투표자로서 등록하지 않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향후 선거에도 참여할 의

<표 3> 국민정체성과 투표 행태

독립변수	투표자 등록	투표 참여	투표 참여 의향
자문화 중심주의	-.132*** (.046)	-.134** (.048)	-.129** (.051)
시민 공화주의	.013 (.035)	.000 (.036)	.070 (.039)
연령	.039*** (.006)	.053*** (.006)	.030*** (.006)
교육	.112** (.049)	.185*** (.053)	.022 (.053)
소득수준	.076*** (.021)	.094*** (.021)	.062*** (.023)
성별	.087 (.157)	.105 (.163)	.228 (.174)
흑인	1.891*** (.306)	.555** (.270)	2.669*** (.477)
백인	1.402*** (.167)	.337 (.191)	1.515*** (.186)
정치신뢰	-.400*** (.117)	.082 (.127)	-.193 (.132)
정당일체감	.058 (.042)	.020 (.042)	.055 (.047)
정치이데올로기	-.236** (.111)	-.056 (.118)	-.131 (.124)
N	1,929	1,648	1,900
-2Log 우도	1146.173	1075.057	960.186
R ²	.128	.096	.097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p<0.05, ***p<0.01(two-tailed)

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 공화주의적 정체성 변수는 투표자 등록, 투표 참여, 투표 참여 의향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으로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인은 투표자로서 등록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의 투표에도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논의된 이민과 이중 언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와 더불어 국민정체성 인식이 개인의 정치태도 및 행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상징 정치이론이 주장하듯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개인의 상징적인 정치정향은 경제적 이익에 기반을 둔 합리적 계산의 과정 못지않게 개인이 내리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슈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결과와 한 가지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이슈에 대한 태도에서는 두 종류의 정체성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온 반면, 투표 참여 행태에서는 오직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왜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만 투표 행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정교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기서는 선행연구의 예를 들어 간단히 그 이유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⁶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귀속적, 혈통적 속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정치참여에 소극적이라고 한다(Schatz et al., 1999; Huddy and Khatib, 2007). 예를 들어, 샤프와 그의 동료들은(Schatz et al., 1999) 귀속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정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도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허디와 하티브

-
5. 시민권을 가진 개인들만 투표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6. 자문화 중심주의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출처 정회욱(2011)에 정리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Huddy and Khatib, 200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귀속적 특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성향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경험과 정보에 대한 폐쇄성이어서 권위주의자들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적인 정보 등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따라서 정치적인 소극성을 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⁷ 또한 허디와 하티브는 권위주의자들은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맹종하며 강한 지도자를 지지하고 자신의 의사 결정 권한을 지도자에게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자들은 정치적 반대 의사 표명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의 정치참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귀속적 특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고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참여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귀속적 특징을 강조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은 정치참여에 있어서 소극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며 차후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수준과의 관련성 때문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귀속적, 혈통적 특징을 강조하는 성향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Howard, 1989; Huddy and Khatib, 2007; Sharma et al., 1995).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강하게 갖는다는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정치참여의 동기와 자원이 풍부해진다는 데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Lazarsfeld et al., 1944; Leighley and Nagler, 1992; Verba et al., 1993a; 1993b; Wolfinger and Rosenston, 1980.) 따라서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낮은 교육수준은

7.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정치참여에 반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익명의 심사자는 권위주의적 성향은 정치권력에 대한 순응적 태도경향의 강화로 이어져 오히려 정치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자문화 중심주의-권위주의적 성향-정치참여의 관계를 심도 깊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표 4〉 국민정체성과 교육수준 간의 상관관계

	자문화 중심주의	시민 공화주의
교육수준	-.299*** (.000)	-.030 (.119)
총계	2,790	2,790

피어슨 상관계수. 괄호 안은 유의수준임. *** $p < 0.01$ (two-tailed)

간접적으로 이들의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을 경험적으로 입증해보기 위해 두 종류의 국민정체성 인식과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에 따르면 자문화 중심주의와 교육수준은 피어슨 상관계수 -.299를 보여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 공화주의는 교육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미국인들은 교육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궁극적으로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소극적인 정치참여 행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이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로 지식수준의 영향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카라사와(Karasawa, 2002)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내외 정세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일본인일수록 더욱 귀속적 특징을 강조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치지식이 정치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러 연구들(Jerit et al., 2006; Milligan et al., 2004; Palfrey and Poole, 1987; Zaller, 1992)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낮은 수준의 정치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이 투표참여에도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표 5〉는 국민정체성과 정치지식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 데이터는 응답자의 정치지식을 묻는 네 개의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수정조항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 “윌리엄 렌퀴스

〈표 5〉 국민정체성과 정치지식 간의 상관관계

	자문화 중심주의	시민 공화주의
정치지식	-.290*** (.000)	-.023 (.226)
총계	2,800	2,800

피어슨 상관계수. 괄호 안은 유의수준임. ***p<0.01(two-tailed)

트(William Rehnquist)가 맡고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3)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정당이 현재 하원의 다수당인지 알고 계십니까?” (4) “상원의 임기는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질문에 정답을 말한 횟수를 합산한 정치지식 변수를 원자료가 제공하고 있어 이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국민정체성 인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문화 중심주의는 정치지식과 부의 상관관계(상관계수 = -.290)를 갖는 것으로 나온 반면 시민 공화주의와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상관분석 결과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정체성만이 투표자 등록, 투표 참여, 그리고 투표 참여 의향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교육수준과 정치지식이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미국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국민정체성 인식은 개인들이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그리고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정치학의 여러 연구 분야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해준다.

첫째, 상징 정치이론의 설명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주었다. 상징 정치이

론은 특정 이슈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치관이나 정체성 같은 상징적 신념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합리적 계산에 기반을 한 정치적 결정을 강조하는 경제적 이익 이론과 대비를 이룬다. 분석결과는 이민 이슈 및 언어 사용 문제에 관한 태도에 있어 국민정체성 인식은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정치태도 형성에 있어서 상징적 신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투표자 등록, 투표 참여, 투표 참여 의향 등 개인의 정치행태의 핵심적인 측면들에서도 국민정체성 인식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는 집단의 특정한 정치적 상징물에 대해 습득한 호의적 성향이 개인의 정치태도는 물론이고 행태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이민 및 이중 언어 문제에 대한 연구와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 및 국가의 공식 언어 지정에 대한 문제는 사회 내 어떠한 문제보다도 ‘국가’ 및 ‘민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문제 및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한 의견은 우리나라에 낯선 사람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태도와 깊숙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국민정체성은 국가 구성원을 국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인 국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포섭의 태도를 타자인 이주자에게는 거리를 두는 배제의 태도를 보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Hjerm, 1998; 윤인진·송영호, 2011).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은 인종 및 출신 민족 등에 바탕을 두어 일정한 경계선을 그어 자국민인 ‘우리’와 이주자인 ‘그들’로 분리하여 ‘그들’에게는 거리를 두는 배제의 태도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정체성에 대한 연구들과도 본 논문이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국민정체성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의 두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되었다. 이민 및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데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시민 공화주의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표자 등록, 투표참여, 투표 참여 의향에는 오직 자문화 중심주의만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정체성 인식의 두 모델들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문화 중심주의가 정치지식 및 교육수준과 가지는 상관성을 제시하며 기초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자료의 한계 상 더욱 심도 깊은 분석이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국민정체성 인식의 다양한 형태들과 이들이 개인들의 정치 태도 및 행태에 있어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차후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의 여러 이슈들 중 이민 및 이중 언어 이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국민정체성 인식의 영향력이 다른 이슈들, 예를 들어, 경제, 복지, 의료, 외교, 군사 이슈 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될지는 알 수 없다. 이는 본 연구의 발견이 제한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향후 보다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여 국민정체성 인식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적용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국가라는 추상적인 상징물에 대한 개인들의 정치정향의 영향력이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보다 보편적으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인지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국민정체성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3-09-12 심사일자: 2013-11-07 게재확정: 2013-11-24

참고문헌

- 오영인. 2012. 「미국 이중 언어 교육정책과 이민자들」. 『미국사 연구』 제35집. pp. 161-190.
- 윤인진·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 연구』 제55호. pp. 143-192.
- 정희옥. 2011. 「미국의 민족주의자는 정치참여자인가」.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2호. pp. 37-63.
- 최셋별·이명진·김재은. 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감정조절이론(ACT)

- 의 수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7권 제5호 pp. 1-30.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Multicultural Citizenship): 다문화의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2호 pp. 147-174.
- Alvarez, R. M. and T. L. Butterfield. 2000. "The Resurgence of Nativism in California? The Case of Proposition 187 and Illegal Immigr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81(1): 167-179.
- Brubaker, R.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e, C. E., A. M. Greeley, and S. Fuchs. 1989. "Social Determinants of Racial Prejudice." *Sociological Perspectives*, 32(4): 469-483.
- Citrin, Jack and B. Duff. 1998. "Alternative Symbolic Meanings of American National Identi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olitical Psychology, Montreal.
- Citrin, Jack, Wong, C., and Duff, B. 2001. "The Meaning of American National Identity: Patterns of Ethnic Conflict and Consensus." In *Social Identity, Intergroup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71-100.
- De Figueiredo, R., and Elkins, Z. 2003.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1): 171-188.
- Espenshade, Thomas J. and Charles A. Calhoun. 1993.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toward Undocumented Immigr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2(3): 189-224.
- Hainmueller, Jens and Michael J. Hiscox.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 399-442.
- Heath, A. and Tilley, J. 2005. "British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7(2): 119-132.
- Herring, M., Jankowski, T. and Brown, R. 1999. "Pro-Black Doesn't Mean Anti-White: The Structure of African-American Group Identity." *The Journal of Politics*, 61(2): 363-386.
- Hjerm, M. 1998.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 Sociologica*, 41(4): 335-347.
- Hjerm, M. 2005. "What the Future May Bring: Xenophobia among Swedish Adolescents." *Acta Sociologica*, 48(4): 292-307.
- Hernes, Gudmund and Knud Knudsen. 1992. "Norwegians' Attitudes toward New Immigrants." *Acta Sociologica*, 35(2): 123-139.
- Howard, D. G. 1989. "Understanding How American Consumers Formulate Their Attitudes About Foreign Products."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2(2): 7-22.

- Huddy, Leonie and Nadia Khatib. 2007.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63-77.
- Huntington, Samuel. 2004.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Jeong, Hoi Ok. 2013. "Do National Feelings Influence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9(9): 1461-1477.
- Jerit, Jennifer, Jason Barabas, and Toby Bolsen. 2006. "Citizens, Knowledge, and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2): 266-282.
- Jones, F. L. and Smith, F. 2001.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2): 103-118.
- Karasawa, Minoru. 2002. "Patriotism,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among Japanese Citizens: An Etic-Emic Approach." *Political Psychology*, 23(4): 645-666.
- Lazarsfeld, Paul F., Berelson Bernard, and Hazel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ighley, Jan E. and Jonathan Nagler. 1992. "Socioeconomic Class Bias in Turnout, 1964-1988: The Voters Remain the Sam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3): 725-736.
- McClosky, Herbert and Alida Brill. 1983. *Dimensions of Tolerance: What Americans Believe about Civil Libert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illigan, Kevin, Enrico Moretti, and Philip Oreopoulos. 2004. "Does Education Improve Citizenship?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10): 1667-1695.
- Oliver, J. E. and Wong, J. 2003. "Intergroup Prejudice in Multiethnic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4): 567-582.
- Palfrey, Thomas R. and Keith T. Poole.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Ideology, and Voting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37): 511-530.
- Schildkraut, De. J. 2002. "The More Things Change... American Identity and Mass and Elite Response to 9/11." *Political Psychology*, 23(3): 511-535.
- Shulman, S. 2002. "Challenging the Civic/Ethnic and West/East Dichotomies in the Study of Nationalism."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5): 554-585.
- Smith, A. D. 1991.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Books.
- Starr, Paul D. and Alden E. Roberts. 1982. "Attitudes toward New Americans: Perceptions of Indo-Chinese in Nine Cities." *Research in Race and Ethnic Relations*, 3: 165-186.
- Schatz, Robert T., Ervin Staub, and Howard Lavine. 1999. "On the Varieties of National Attachment: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Political*

- Psychology*, 20: 151-174.
- Schildkraut, Deborah, and Ashley Grosse. 2004. *21st Century Americanism: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ICPSR27601-v2.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distributor], 2010-05-13. doi:10.3886/ICPSR27601.v2
- Schildkraut, De. J. 2003. "American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Official-English Policies." *Political Psychology*, 24(3): 469-499.
- _____. 2005. *Press One For English: Language Policy, Public Opinion, and American Ident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Defining American Ident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How Much "There" Is There?" *The Journal of Politics*, 69(3): 597-615.
- Sharma, S., T. A. Shimp, and J. Shin. 1995. "Consumer Ethnocentrism: A Test of Antecedents and Moderator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s*, 23(1): 26-37.
- Verba, Sidney, Kay L. Schlozman, Henry E. Brady, and Norman H. Nie. 1993a. "Citizen Activity: Who Participates? What do They Sa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03-318.
- _____. 1993b. "Race, Ethnicity and political Resources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4): 453-97.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 Zaller, John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National Identity among Americans

Jongbin Yoon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Myongji University

Hoi Ok Jeo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national identity among Americans. With a focus on the two components of national identity, ethnoculturalism and civic republicanism, we utilize the *21st Century Americanism Survey* and run a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Americans' national identity has an impact on not only Americans'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d bilingual education, but also voting particip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 the symbolic politics theory, which emphasizes an important role played by symbolic predispositions on individuals' political attitudes/behaviors.

Keywords: American politics, immigration, national identity, multicultural society, voting participation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본관 1515호
Tel_02-300-0696 E-mail_polsjby@naver.com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본관 1519호
Tel_02-300-0699 E-mail_hoiojk@gmail.com

